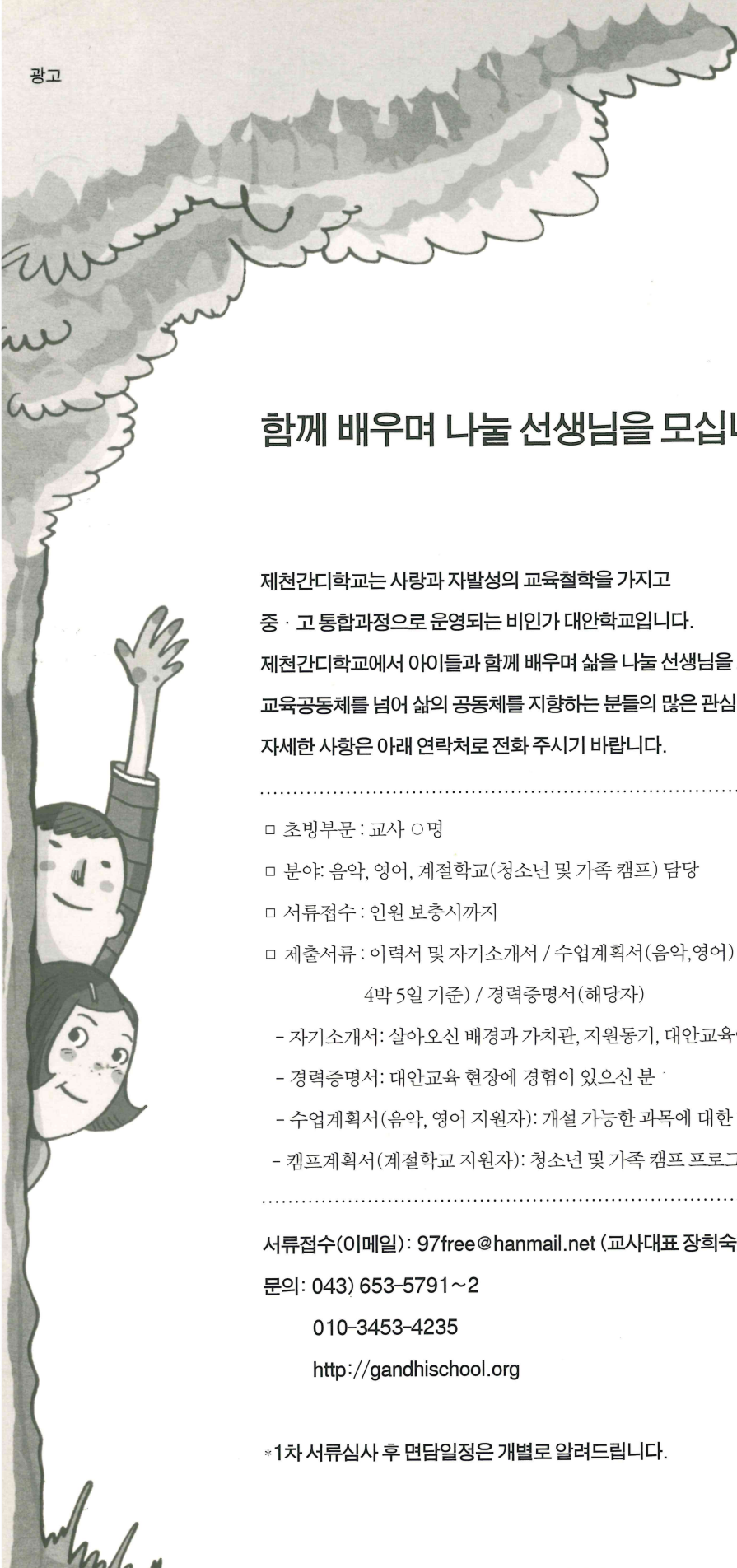




함께 배우며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교육공동체를 넘어 삶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초빙부문: 교사 ○명

□ 분야: 음악, 영어, 계절학교(청소년 및 가족 캠프) 담당

□ 서류접수: 인원 보충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수업계획서(음악, 영어) / 캠프 계획서(계절학교,
4박 5일 기준) / 경력증명서(해당자)

- 자기소개서: 살아오신 배경과 가치관, 지원동기,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철학 등

- 경력증명서: 대안교육 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분

- 수업계획서(음악, 영어 지원자):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한 한 학기 수업 계획서

- 캠프계획서(계절학교 지원자): 청소년 및 가족 캠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서류접수(이메일): 97free@hanmail.net (교사대표 장희숙)

문의: 043) 653-5791~2

010-3453-4235

<http://gandhischool.org>

*1차 서류심사 후 면담일정은 개별로 알려드립니다.

간디IN

2 0 1 1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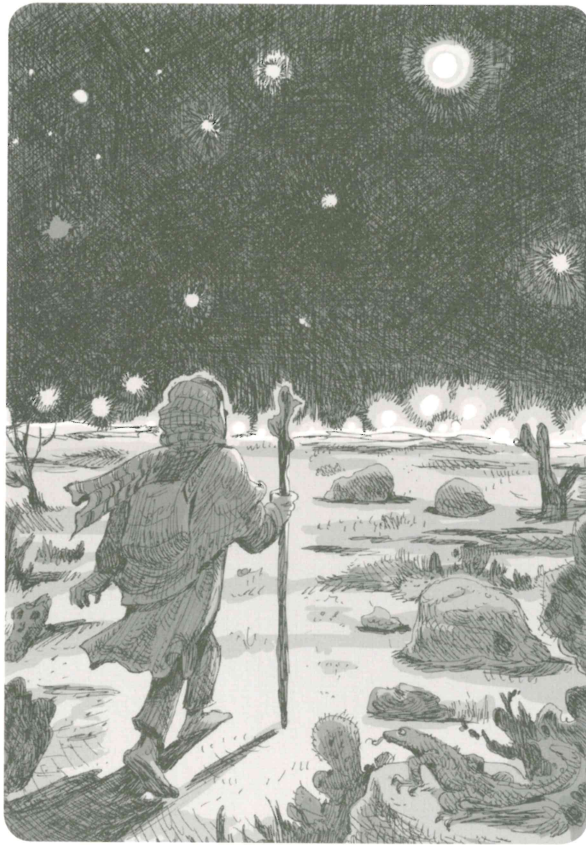
사랑과 자발성의

제천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꼭지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러분의 글과 그림이 채워질 이 면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 미스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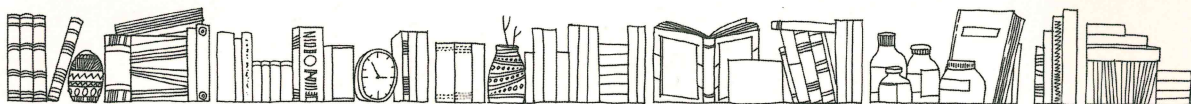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맘으로 닳은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 하는 것

-〈꿈꾸지 않으면〉, 양희창

표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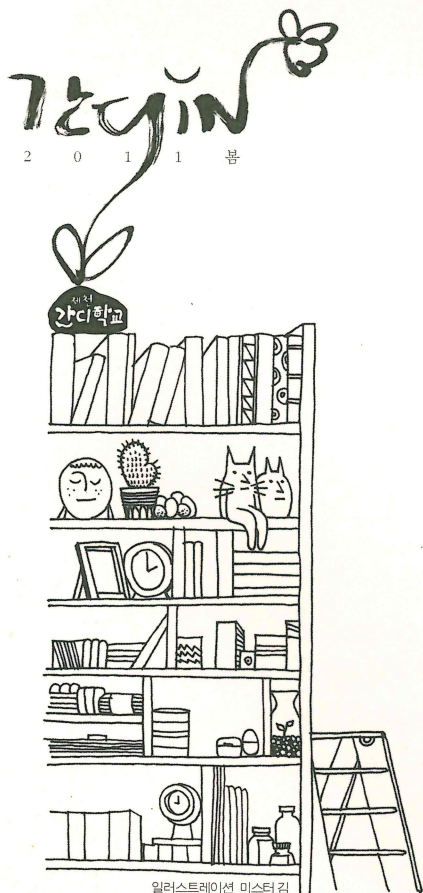
사진 · 글 박종은 기자(4학년)

유난히 매섭던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간디학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진달래와 민들레가 피었고 새순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지난 겨울 움츠렸던 간디인들도 차차 기지개를
펴고 밝은 웃음을 짓겠지요.
올 봄, 간디인의 웃음이 기대가 됩니다.



차례

여는 글	2	새로운 봄, 새로운 간디IN
간디인 특특 1	4	열다섯,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다
간디인 특특 2	8	때밀기와 초코 우유
간디인 특특 3	10	봄날
간디인 특특 4	12	간디 15대 불가사의의 중 11번째
간디인 특특 5	13	간디인의 평범한 하루
반가워요 후원인	14	덕산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픈 왕골 작가 경동하 선생님
간디IN이 만난 사람	16	도깨비와 피아노 공주
배움 속으로	18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에니어그램
우리끼리	21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도대체 왜?!
사설	24	자급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간디인 짧은 소식	26	새싹 돋는 간디학교 봄 이야기
후기	32	



일러스트레이션 미스터 김

새로운 봄, 새로운 간디IN

최햇님 편집장(4학년)

안녕하세요. 간디IN 독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도 지나가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은 1년의 첫 계절이라 그런지 항상 새롭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봄처럼, 1년의 첫 스타트를 끊을 간디IN 봄호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식상한 간디IN이 아닌, 독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 하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담아낸 소식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디IN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먼저, 독자 여러분들이 간디IN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표지사진은 편집장이 찍고, '주제가 있는 이야기'는 간디IN 기획 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람에게 청탁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간디IN 소식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제가 있는 이야기', '주제가 없는 이야기'는 형식과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글들을 공모해 신는 '간디인 톡톡'으로 바꿨습니다. 일상다반사에서 정해 준 주제대로 글 쓰는 걸 어려워 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차피 간디인들의 이야기를 신는 쪽지인데 주제를 꼭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쪽지 이름을 정할 때는 '간디인 앞마당', '요즘 가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말이야'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가장 쪽지의 성격과 잘 맞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간디인 톡톡'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디IN을 제일 많이 읽는 분들이 CMS 후원인 분들인데, 이제





까지는 소식지에 후원인 분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요 후원인'이라는 꼭지를 이번 호부터 정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간디학교에 새로 생긴 수업들을 설명하는 '교과 속으로'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소소한 스터디 그룹이나, 학교 밖 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도 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서 '배움 속으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한마당'도 학교에 있는 동아리의 개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로, 동아리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자치 소모임들까지 폭넓게 소개하는 '우리끼리'라는 꼭지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디인의 짧은 소식'은 지금까지 딱딱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자가 직접 스케줄러를 그리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간디인들의 생일과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실을 것입니다. 또 기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랍니다.

이외에도, 4학년들이 필리핀에서 학교로 보낸 엽서나 간디인이 그린 그림 등 많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번 봄 호는, 일상다반사 부원들이 작년 겨울부터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고군분투하여 완성된 야망이 가득 찬 소식지입니다. 저희가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이시나요? ㅎㅎ. 저희 일상다반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간디IN,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디IN 개편 첫 호인 2011년 봄 호 즐겁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열다섯,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다



황소윤(2학년)

“사춘기란 자아형성이 불완전한 격동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슬퍼지거나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괜히 부모님께 반항을 하기도 하고, 이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으로 나쁜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또한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한다.”

나는 한창 쑥쑥 자라고 있는 열다섯 살 중 2. 사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평생 1학년일 줄 알았는데, 역시 나도 늙는구나. ㅎㅎ. 6년 동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2010년 처음 간디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2학년 선배들이 마냥 자유롭고 한가한, 고민 따위 없는 그런 언니 오빠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2학년이 되고, 첫 후배가 생기고, 수업을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개씩 고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점점 외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졌다. 또, 하루에도 열댓 번씩 기분이 바뀌고 친구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싸웠다.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이곳이 나에게 맞는 걸까?’라는 수많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내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항상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매일 실수만 하고. 점점 이기적

이고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잘해 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은 없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든다. 예전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애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은 나쁜 짓도 해 보고 싶다. 매점도 가고, 무단 외출도 하고. 머릿속으로 어떤 장난을 칠까 생각하고, 쌤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거짓말도 친다. 점점 어둠의 소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느낀다. 이런 것도 한순간이겠지 생각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ㅋㅋ.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어른 그리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느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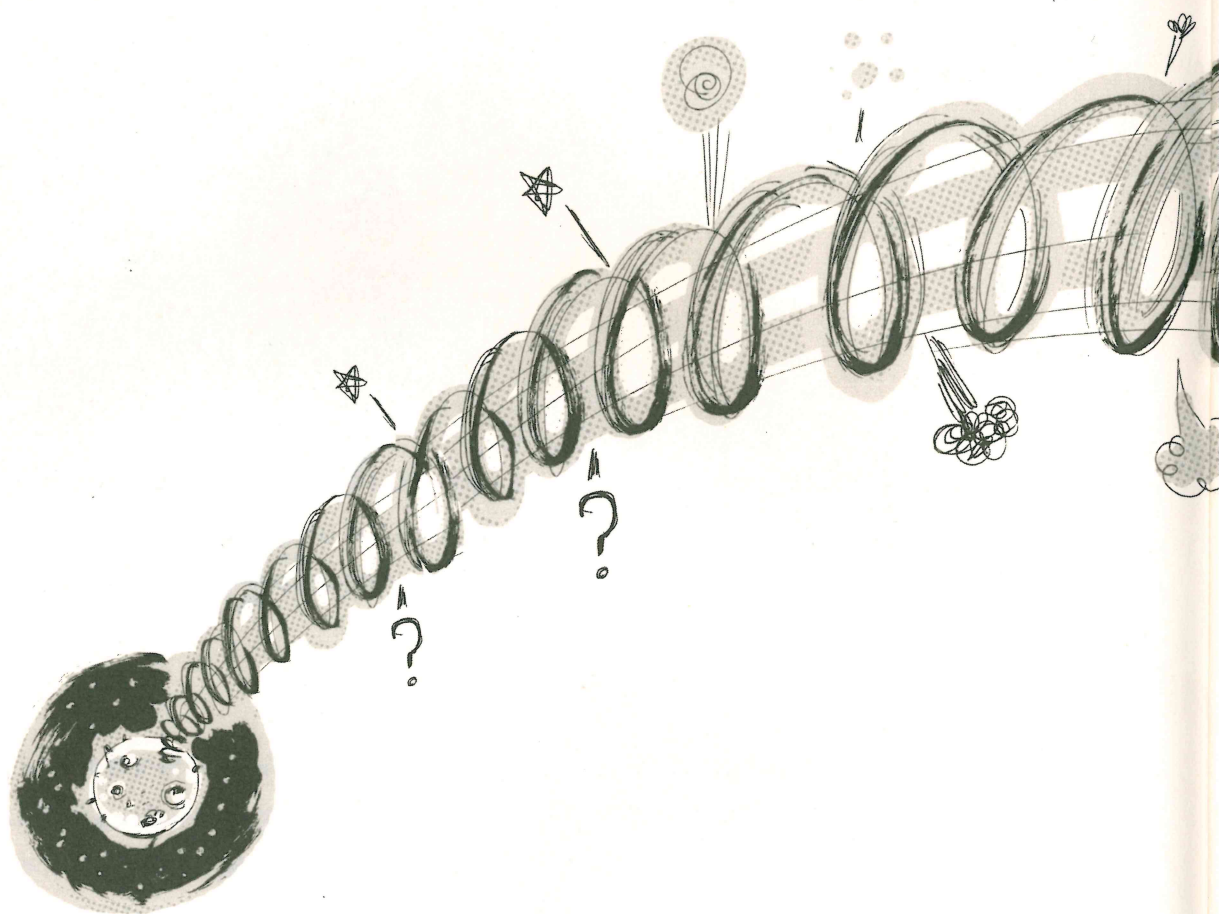
다.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마음들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사춘기인가? 생각해 보니 맞는 것도 같다. 아
마 2학년 '햇반' 모두가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사
춘기. 나는 사실 사춘기라는 새로운 길에 익숙하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흔히 말하는 어른이 되
어가는 단계. 난 사실 어른이 되는 게 무섭다. 아직은
놀고 싶고, 공부도 싫고,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 난 아직 자신이 없고 염려가
된다.

벌써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나도 이상하지만, 그런 고
민들이 나를 괴롭힐수록 나는 점점 질풍노도의 시기
로 접어들었고,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절망에
빠졌다.

그래도 힘든 하루하루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아마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인 것 같다. 가끔은 진절머리나게 밉지만, 진심으로 격
정해 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 주시고 풀어 주셔서 조금
씩 생각이 정리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시는 것 같다. 물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나보다
몇십 년은 더 산 사람, 겪을 것 다 겪어 보고 느낄 것 다
느껴 본 진정한 어른이 조금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큰 마음을 가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다.

난 어려서부터 대안학교를 다녔고, 15년 인생 동안 항
상 얌매이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난 항
상 자유로웠고,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라는 이유만으
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래서인지는 모



일러스트레이션 미스터 김

르겠지만, 가끔 간디학교를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사실 이 곳이 나에게 꼭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은 일반학교에 다녀 보고도 싶다. 공부만 죽어라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 사실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나만의 환상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곳에서도 그나마 즐겁게 생활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 신기하다.

좋은 기억이던 나쁜 기억이던 어떤 것이라도 한 번쯤

은 체험해 보고 싶다. 아직 일반학교 생활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점이 힘든지 괴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학교 학생들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부럽다. 그래서 나는 사회 생활을 해 보고 싶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 보고도 싶다.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지만,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

지금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 빨리 이 혼돈과 사춘기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고 싶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에, 지금 너



무나도 힘들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즐겨 보려 한다.

누가 말했는진 모르겠지만 명언 중에 하나. 참고 버텨라. 그 고통은 차츰차츰 너에게 좋은 것으로 변할 것이다. 언젠가 지나갈 사춘기.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다 추억이니 쌤들과 얘기 나누고, 혼자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꽃다운 사춘기를 보내고 싶다.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기회에 나에 대해서 한층 더 생각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간디인들도 사춘기, 이 힘든 날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나 또한 이 시기를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혈기 왕성한 나이 15살.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성장하고 있다. 아직 내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싸우고 있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간디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꿈을 더더욱 키워 나가고 싶고, 좋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싶다.

쑥쑥 자라 놀랍게 성장해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몸도 마음도 한층 발전되고 성숙해진 나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다. 몇십 년이 지나, 모두들 놀랄 만한 사람이 될 거다. 아직 파릇파릇한 열다섯 황소윤,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

마음에서 폭풍우가 치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파이야! 🌪

때밀기와 초코 우유



이정상(과학 · 3학년 부담임)

추운 어느 겨울날
일요일 새벽
뜨지도 못한 졸린 눈을 부비며
강하고 억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멀리 있는 목욕탕까지 걸어갔던 기억들이 새롭다
처음으로 온 손님
냉랭한 탕 안
탕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일고
그 물은 맑았다
발가락 끝부터 전해져 오는 찌릿함을 느끼며
몇 번을 망설이고 망설이다
결국엔 꾸지람을 듣고서야 거즘 울먹이며 들어앉았던 탕 안
몸을 비비 꼬며 벗어나려 해도 그럴 수 없었던 아버지의 손 안에서
목이 벌겋게 될 때까지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그.렇.게.아.끼.셨.다
그리곤 다정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초코 우유를 건네시던
아.버.지!

이십 여 년이 훨씬 지나 버린 지금도 장성한 아들의 등을 미시며
구석구석 닦아라
닦.아.라
하.신.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팔엔 힘이 없고



그 억셉은 사라졌다

다만 처음부터 표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수줍음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정만이 그대로일 뿐이다

아.버.지

그리고 보니 난 한 번도 아버지를 마중 나가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강했고 당당했기에

하지만 어른이 되어 버린 나도 힘이 드는 걸 보면
아버지 당신도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든다

변하지 않은 때수건으로 너무도 좁아져 버린
아버지의 등을 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본다

조금 있다가 나가서는 내가 아버지에게 초코 우유를 건네 봐야지
수줍어 표현하진 못했어도

아.마.도

아.버.진

알.고.계.실.게.다

봄날

남호섭(교감)

까까머리 위로 봄 햇살을 받으며 짱샘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다.

축구를 한 판 끝내고 심심해하던 아이들 눈이 반짝 빛난다.

“짱샘 머리가 왜 저래?”

“방학 내내 절에서 마음공부했대”

“아직도 남친이 없나?”

“법성사에 가면 부씨 계시잖아”

“남친이 돈이 많을까?”

“당연하지, 황금빛 나잖아”

“꽃디발은 받아 봤을까?”

“해마다 연등 달아 놓잖아”

“백일 선물은 뭐였을까?”

“공양미”

아이들은 키득거리고

짱샘은 자기 애긴 줄도 모르고 멈춰 서서 따라 웃고

아무튼 기분 좋은 봄날.



시인의 말

제천 간디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짱샘이라고 불리는 장희숙 선생님이 계신다. 한때 백일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 왔다. 이제는 다 자랐지만 박박머리였을 때는 동자승 같기도 하고, 오랜 수행자 같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아이들 보기에 신선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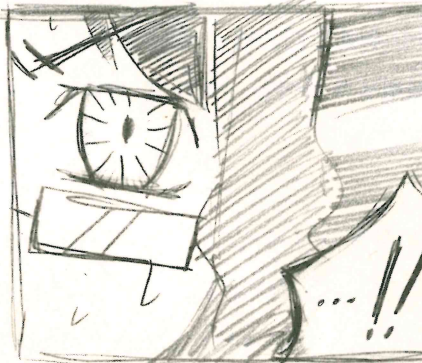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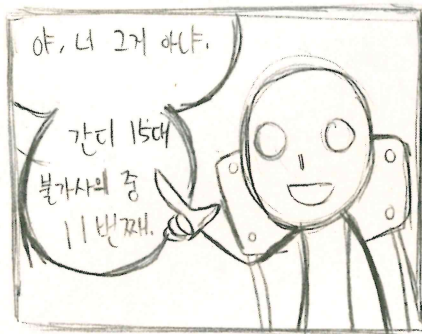
아이들은 그렇다. 살아 있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작은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고 활짝 깨어난다. 예쁜 여선생님이 자기들 앞에 박박 머리로 나타났을 때 아무 감흥이 없다면 어찌 아이들이겠는가.

그런데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나름대로 마음공부 열심히 하고 하산한 선생님을 이렇게 한 방에 희화화해 버리기도 한다. 발랄이 지나쳐 발칙하기까지 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를 놀린다고 정색해 버리면 짱샘이 아닐 터.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 뻔하다. 절에 다녀온 뒤로 더 잘 웃고 더 밝아진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가 봄 햇살보다 따스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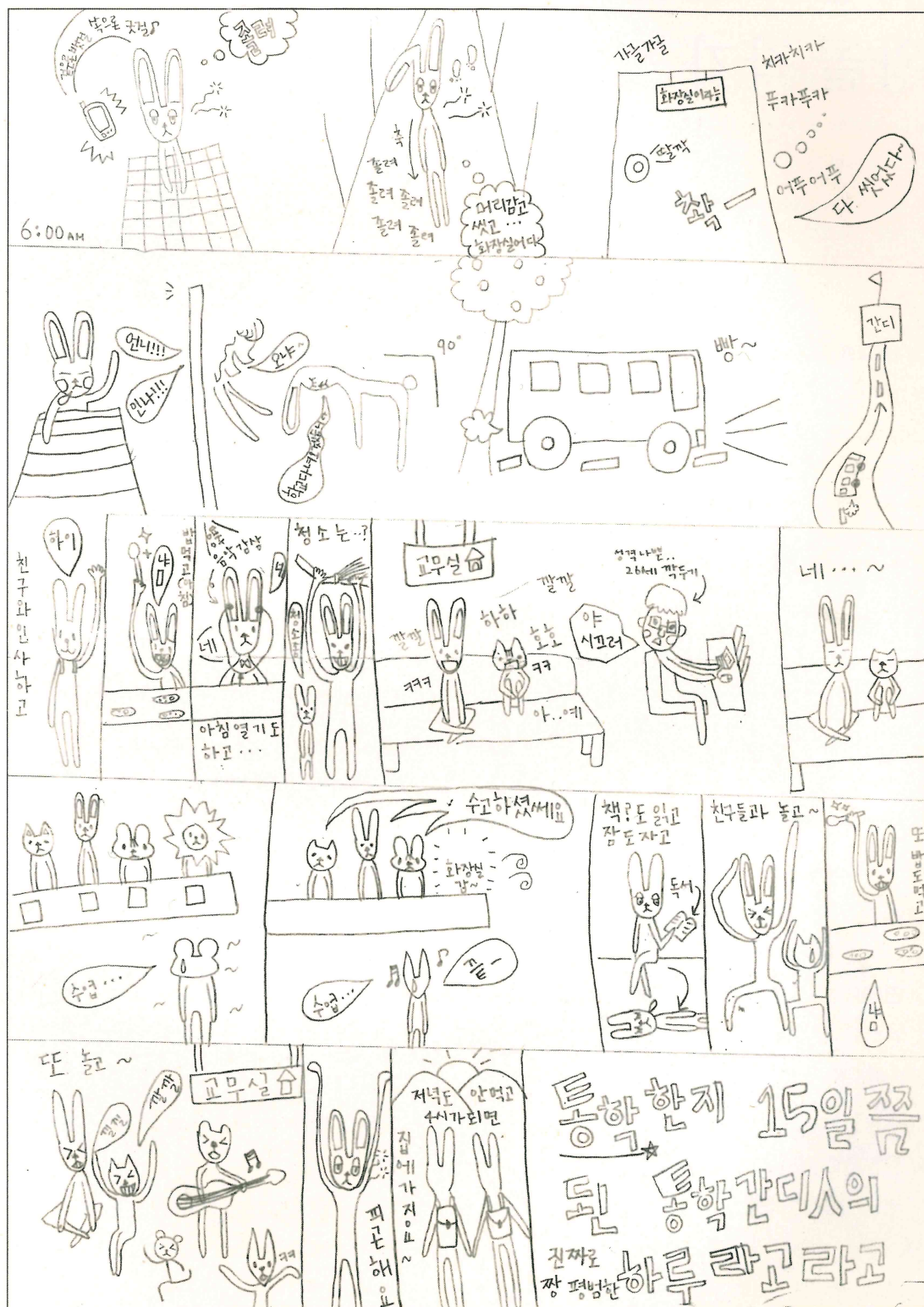
*《학교도서관저널》2011. 05. 통권 13호에 실린 산청간디학교 교감 쌤, 시인, 5학년 다모 아버지이신 남호섭 쌤의 시입니다. ♪

간디 15대 불가사의의 중 11번째 오지영(3학년)



실제로 물어보니 묵은 지 한달이래요.

간디의 평화행하루 신지성(4학년)



덕산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픈 왕골 작가 경동하 선생님

권수정 기자(2학년)



간디학교를 학부모로서, 덕산의 한 주민으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후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체험마을 운영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지만, 본래 왕골 작가로 활동하셨는데요, 왕골과 관련된 그림 작품을 통해 저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점도 많고 관심도 많으셔서 인터뷰 내내 서로 물어 보느라 바빴답니다. 후원인 경동하 선생님 만나 볼까요?

Q. 간디학교를 후원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귀농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디학교 사이트가 눈에 들어와서 그 뒤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이미 일반 학교에서 졸업을 했지만,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간디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열망을 찾아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되었고, 옛날부터 큰 돈은 아니더라도 간디학교에 후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실천에 옮기게 되었지요.

Q. 간디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A. 간디학교를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간디학교 학생들이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맞을까? 일반 학교에 있는 것보다 이곳을 더 좋아하고 행복해할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간디학교 학생들이 품물패를 이루어서 덕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면 덕산과 동떨어지지 않고 잘 흡수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누리 어울림 센

터와 연관된 행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일반 학교 학생들과 달리 일탈된 행동이 보여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보는 시점이자 궁금증인 것 같아요.

Q. 간디학교 사람들과 맞부딪혔던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A. 3~4년 전 어버이날 때 간디학교 품물패가 와서 잔치를 열었는데 막걸리 주니까 잘 먹어 재밌었고, 말 걸면 일반 학생들처럼 수줍어하지 않고 재치 있게 대답해 줬어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성으로 느껴져서 일반 학생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Q. 덕산과 간디학교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A. 마을 주민들과 조화되려고 간디학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흡수되는 것 같고, 특히 큰 행사 때 성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Q. '면민의 날'이나 '문화의 밤' 같은 학교 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행사로 인해 동네가 시끄러워 피해가 되진 않나요?

A. 제가 원래 구경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참여한 적이 없지만, 피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무료한 시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서 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Q. 대안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A.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 학교 교육정책에 못마땅해하고 경쟁 속에 갖춰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찾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일반 학교의 부정응자가 아닌, 일반 사회에 더 적응하기 위해 가는 곳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해요.

Q.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한수면 덕곡리에 있는 '덕실산촌 체험마을'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만, 본래 저의 직업은 왕골 작가였어요. 왕골이란 것은 논에 있는 풀 중 뽑아 버리는 풀을 '피'라고 하는데, 그 피 중에 있는 거랍니다. 그걸로 둥구미, 향아리 같은 것을 만드는 왕골 작가인데, 흔히 짚풀 공예가라고도 하지요.

Q. 월롱 부녀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A.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부녀회 회장을 4년간 했었어요. 시골 동네 부녀회라면 뻔하지만 동네 행사 준비나 잔치 음식 준비하고, 농사가 끝나는 철에는 밭에 덮는 비닐을 걷어서 팔아 돈도 모으고, 가끔은 불우이웃 돕기로 김장을 담가 주기도 했지요.

Q.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간디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덕산에 있는 일반 학교와 간디학교 학생들 사이의 경쟁심 같은 감정들을 간디학교가 앞장 서서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디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온 아이들이고, 덕산 학생들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 학생들의 입장에서 간디학교를 바라보았을 때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간디학교가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왕골 작가로서 상도 많이 탔는데 덕산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요. 최근에는 천연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왕골이랑 매치시켜서 나중에 지역 전시도 하고, 수입 창출도 하는 게 꿈이에요.

바쁜 시간 와중에도 시간 내주시고 우유도 사 주시고 대답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저희 학교를 예쁘게 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간디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깨비와 피아노 공주

임소현 기자(4학년)



간디INI 지아크닉스팀

옛날 옛날, 도심 속에 도깨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도깨비는 젊은 대학 시절을 술과 과도한 운동으로 보냈어요. 덕분에 몸이 나빠진 도깨비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간 도깨비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인 피아노 공주에게 폭 빠지게 되었어요. 한 마디로 반해 버린 거죠. ^////^ 그리하여 도깨비는 ‘여친 만들기 제1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 없는 소포 보내기!!’ 도깨비답게 투박한 박스를 반쯤 채워 피아노 공주에게 보냈습니다. 이름 없는 소포를 받은 피아노 공주는 소포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누가 보냈는지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도깨비의 구애에 피아노 공주도 도깨비에 대한 마음이 싹 트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와 피아노 공주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도깨비는 한의원 운동치료사, 다문화 강사, 아동 복지시설 운동 강사까지 두 잡도 아닌 쓰리 잡까지 뛰었습니다. 엄청 바빴을 줄 아시면 큰 오산입니다. 쓰리 잡에 비해 버는 것은 조금이었지만 생각보다 여유로웠답니다. 피아노 공주는 이름답게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다가 귀여운 아기 민재가 생기면서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낀 도깨비가 결혼하고부터 생각해 오던 일이라며, 아내인 피아노 공주에게 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살자!”

그 말을 들은 피아노 공주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이 시골인 도깨비는 귀농이 좋을지 몰라도 시골생활을 해 보지 않은 피아노 공주로서는 조금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도깨비가 아닙니다. 피아노

공주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드디어 귀농하기로 하였습니다. 도깨비는 제주도와 자신의 고향인 제천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깨비는 어느 날 타로 점을 쳐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곳에 가자 타로 점술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천에 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미 제천으로 갈 마음을 굳혔으면서 이런 건 왜 보러 왔어!”

그러자 도깨비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타로 점술사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는 자신의 고향이면서 또 워낙 관심이 있었던 간디학교가 있는 제천 덕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도깨비는 시골 생활의 좋고 나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피아노 공주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시골이 공기도 좋고 여유롭지만, 서울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은데 시골은 그에 비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도깨비와 피아노 공주는 덕산 생활에 적응해 가며 ‘꿈터’에서 일하고 간디학교에 강사 쌤으로 간디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 민재도 자유로운 분위기의 간디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한편으론 두 사람의 수입으로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깨비는 ‘꿈터’ 아이들과 즐겁게, 피아노 공주는 육아와 피아노 쌤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들 민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민재가 할 말이 있대요.

“아빠 안아!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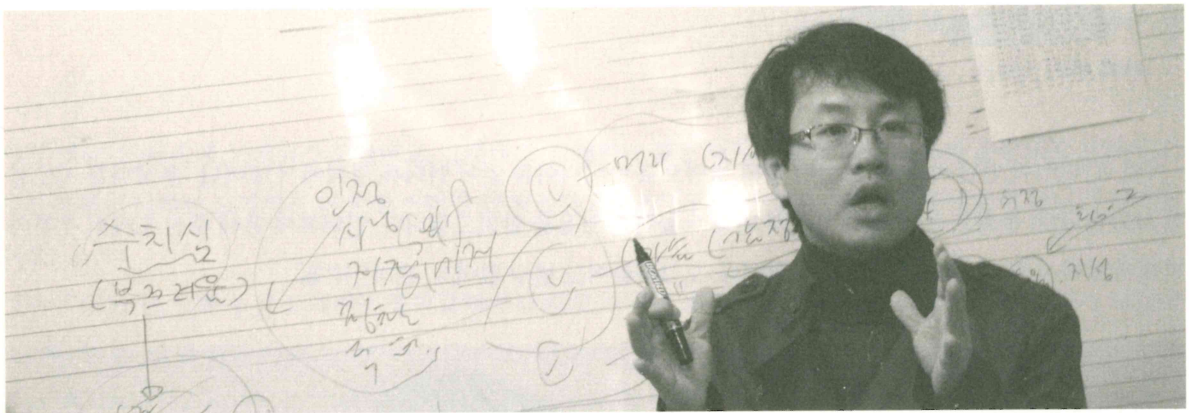
* 이번 ‘간디IN이 만난 사람’은 도깨비 쌤의 별명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인터뷰 형식에서 벗어나 좀 색다른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동화로 쓰다 보니 약간의 미화가 들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도깨비 부부와 민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그라들어도 별수 없어요. 견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에니어그램

최햇님 기자(4학년)

2학년 양성민 군의 학부모님이신 양승복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에니어그램’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셨어요.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이 뭐지? 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에니어그램에 대해 한 번 알아봅시다!



1. 에니어그램이 무엇인가요?

- 에니어그램은 BC 2500년경까지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체계입니다. 고대의 종교와 영성, 다양한 학문의 전통들이 모여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고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니어그램에는 우주와 사람, 자연에 대한 동서양의 다양한 이해, 원리와 상징들이 압축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로 구체화되고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내면 이해와 성찰의 도구로 연구되고 다듬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personality)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성격 에니어그램’의 체계로 계발되고 발전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배우는 에니어그램은 그래서, ‘성격 에니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2. 에니어그램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 나와 다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조금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성격의 특성, 즉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이 무슨 욕망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어떤 행동과 태도의 동기가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내면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내가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들의 원인들을 살피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도 있게 되구요. 에니어그램 그 자체보다 에니어그램이라는 지혜의 도구를 통해 '나'와 '친구'에 대해 배우며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지요.

3. 어떤 계기로 에니어그램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시게 되었나요?

- 간디 학부모로서 간디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에 대해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괜히 짜증도 나고 진로도 고민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나'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친구'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했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에니어그램이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4. 에니어그램 수업을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배우는 친구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배우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말을 자신에게나 친구들에게 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 갑작스런 갈등이나 싸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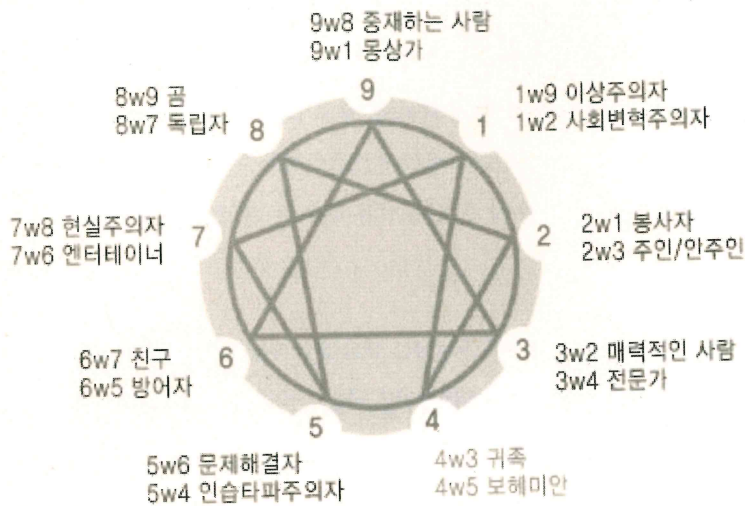
5. 에니어그램의 매력이 있다면?

- 에니어그램 최고의 매력은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이들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운다는 것, 그런 건강한 자기성장의 방향을 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쌤은 에니어그램의 몇 번 유형이세요?

- 저의 기본 성격 유형은 1번 유형이에요. 삶을 조금 더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에너지를 쓰고,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고 포용하는 평화주의자의 특성이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유형이지요. 완벽을 지향하는 특성이 지나치면 꼼꼼하고 완고하며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때론 너무 느긋해지며 나태함을 보이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7. 성민이한테도 에니어그램을 가르쳐 주는지?



양희창: 2
김현숙: 4w5
박후조: 7
손진근: 1
오필선: 4
김윤하: 7w6
장희숙: 2w1
김정환: 5

- 성민이도 에니어그램을 조금 공부하긴 했죠. 간혹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에니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대화 수준이구요.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 했는데, 수업이 겹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또 기회가 있겠지요.

8.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 모든 학문과 배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를 포함해서이지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나'와 진지하게 사귀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사귄 수 있다면 세상을 다 얻는 것만큼 큰 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간디인들에게 에니어그램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도대체 왜?!

한 별 신입기자(2학년)

간디학교에 새로운 소모임이 생겼어요! 학교 철학과도 잘 맞는 이 모임은 장차 간디 학교를 대표하는 소모임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밥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밥을 먹는 사람들! '채식자 모임'의 대장 5학년 범수 오빠와 인지 언니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채식주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나요?

A.(범수)제가 3학년 때 채식에 관심이 있어서 논문의 주제를 채식으로 했는데, 논문의 결론을 낼 때 '학교에 채식주의 모임을 만들어서 채식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4학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필리핀 갈 준비도 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1년 동안 미뤄 뒀었죠. 그러다가 이번 겨울 방학 때 생각을 다시 해 보고 후조 쌤과도 의논 드리고 해서 이번 학기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Q. 채식주의 모임은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A.(범수)딱히 환경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간디학교의 채식주의자들이 각자의 이유에서 채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학교 식당에서 채식주의 식단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방 쌤들도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따로 만들어 주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으셔서요. 간식이나 채식 메뉴 등을 보면 혼자서 채식을 해 나가는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모여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Q. 현재 채식자 모임의 회원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A.(범수)현재 회원은 5학년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5학년은 인지, 저(범수), 박종화, 상민, 다모, 건희가 있고, 민현이, 현준이, 수자 쌤, 미리 쌤, 후조 쌤, 경수 쌤이 계십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서로 채식을 하게 된 계기 등을 나누면서 생각 공유도 하고, 돈가스 같은 보스급 음식이 나올 때 주방 쌤들이 만들어 주시기 조금 힘든 채식자 음식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Q. 어떤 계기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범수)예전에 학교 농사 쌤으로 최성훈 쌤이 계셨



는데, 그 쌤께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고기를 위해 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식물을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생각 끝에 채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자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인지)저도 범수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데, 닭을 키우면 그 양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소를 키우면 12분의 1로 줄어든대요.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 살아서 고기를 먹고 있지만 세계에는 밥조차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고기를 한 번 먹으면 12명의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채식을 하게 되었어요.

Q. 채식을 실천하시는 입장에서 저희에게 채식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A. (인지)채식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 고기와 유제품과 생선까지 다 먹지 않는 채식이 있어요.

또 채식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지구 온난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고기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꽤 큰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어요.

Q. 그런데 인지 언니나 범수 오빠는 채식주의자인 해도 정말 고기가 먹고 싶지 않으세요?

A.(인지)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기는 해요.(웃음) 지금은 교내 채식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교외 채식까지 할 때는 6개월 동안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 않으니까

고기 냄새 자체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어요. 지금은 가끔 먹는데(웃음) 고기를 줄여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범수)아니 뭐.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죠. (모두 웃음)

(인지)그리고 어느 정도 안 먹으면 그때까지 안 먹은 게 억울해서 좀 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Q. 간디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채식' 하면 힘들다, 싫다, 어렵다 등의 부정적인 편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범수)저희가 생각하기엔 간디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고기를 계속 먹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갑자기 안 좋다고 말하고 채식이 좋다고 풀을 먹으라고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저희 간디학교가 다른 곳보다 학생들이 고기에 예민하고 열광하니까 하자고 권하기도 조심스러워요. 또 채식이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것이다. 힘들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운동이라는 이미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지)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그 일이 꽤 오래 가잖아요. 우리 학교가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범수)인지 말처럼 그래서 이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혼자 채식을 하기가 힘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채식 자체의 의미와 뜻은 좋지만 너무 힘들다고 하죠.

Q. 전에 말하셨던 '보스급' 음식들(돈가스, 삼계탕 등)이 나올 때 함께 나오는 채식자 메뉴는 어떤가요?

A.(인지)예전에 비해서는 채식자 음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식자들은 소수잖아요. 모두 다 해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를 위해서 또 다른 음식을 해 주시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 식당 쌤 수고도 덜어드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채식자들을 위해 신경써서 음식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식당 쌤들께도 감사하고요.

Q. 채식자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A.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 채식자 식단에 불만이 있는 사람. 저희가 채식을 해 먹는 활동이 현재 주 활동이니까요. 또, 하고 싶는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간디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해주세요.

A.(인지)채식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채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한 번쯤 채식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채식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한 번쯤 채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범수)채식자 모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바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식자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꼭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디인 여러분도 채식에 관심 가져 주세요. 🌱

자급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조하한 기자(2학년)

미국의 '카길'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식량을 싼 값에 공급해 세계 시장에 점유율을 높여 여러 나라를 식량 종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미 종속국이 되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기업이 부르는 값에 식량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25% 정도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의 3/4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자급률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간디학교에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식량전쟁에 맞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 현재 농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영준 쌤과 1학년 '농사 기초', 2·3학년 '농작' 수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의 식량 자급률은 매우 낮다. 현재 학교에서 자급하고 있는 작물은 감자, 보리, 마늘, 양파뿐이며, 그 외에 필요한 식량들은 모두 외부에서 사 먹고 있다.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실질적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먼저 학교엔 인력이 없다.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주일에 2~3번 수업으로만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의 노동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무빙 스쿨, 가정 학습, 방학 기간엔 농사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부분의 농사일은 농사 쌤과 농사소위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농경지다. 100명 남짓한 인원이 먹을 식량을 종류별로 재배한다면 어마어마한 농경지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력이 있다고 해도 식물은 땅에서 자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자급률 저하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 ‘자급 자족의 조건은 소규모’ 라는 말도 있다. 학교에 자급률 저하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식량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의 땅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절로 일하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고로 자기가 먹을 건 스스로 재배해 먹을 때 진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디학교는 한계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 학교 주변 지역 식품을 소비하는 ‘로컬 푸드’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2,3학년 ‘농작’ 수업과 1학년 ‘농사기초’ 수업에서 학년마다 밭을 나누어 작물을 무경운 농법으로 키워 보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쌤들도 밭을 나눠 같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고민할 것도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자급자족에 대한 이해와 직접 농사를 해서 작물을 재배해 보는 공부, 당장에 학교의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노력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자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급자족이란 꿈은 멀지 않아 이뤄질 꿈이라고 생각한다. 🌱

새싹 돋는 간디학교

봄 이야기



홍지인 기자(4학년)

3/12 체육대회 · 신입생환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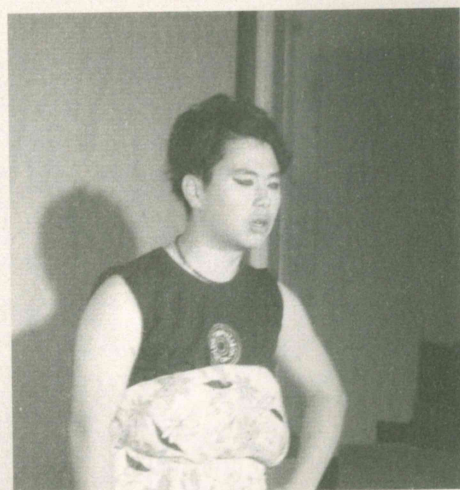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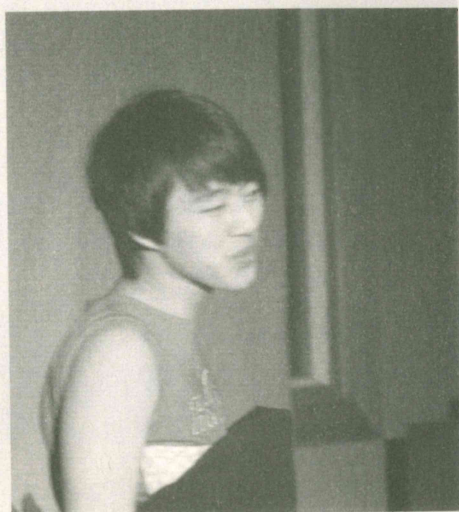
2011년, 우리 학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줄 신입생들을 위해 학생회에서 전교생 체육대회와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람도 없는 화창한 봄날에 단체 줄넘기, 짝피구 등 전통의 체육대회 종목들을 즐겼고, 밤에는 신입생 멘토의 선물 증정식, 전교생 얼굴과 프로필이 담긴 ppt를 보고, 선배들의 멋진 밴드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

3/23 문화의 밤 '박원순의 희망열차'

희망전도사 박원순 선생님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의 주제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천 개의 직업들'이었는데 채소 소믈리에, 된장 공방, 폐가 콘도미니엄 등 생각지도 못한 직업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학생 외에도 하루 종일 '누리마을 빵까페'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에 올라와 강의를 들은 졸업생들, '나도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학부모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말 모든 간디인들이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3/25 비폭력 서약식

간디인 모두가 비폭력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서약하는 비폭력 서약식을 했습니다. 비폭력 서약식이 끼어 있는 일주일 동안을 '평화주간'으로 정해 각 반마다 존댓말 쓰기, 피스마크 도장 찍기 등의 평화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서약식에서는 비폭력 서약서 낭독, 자유발언, 지장 찍기, 프리허그 등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을 받았던 순서는 마지막 비폭력 서약식이라며 야심 찬 연극을 준비한 5년들의 무대였습니다. 동화 <백설공주>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극으로 재구성하였는데, 5학년들의 우스꽝스러운 여장과 소름 돋는 연기력이 강당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3/29 동아리 한 마당

학교의 여러 개성 넘치는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동아리 한 마당! 올해는 새로 생긴 기타 동아리 '다섯손가락(일명 다락)'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는 다락 회장 4학년 문장훈 학생의 현란한 핑거스타일(한 대의 어쿠스틱 기타로 비트, 베이스라인, 멜로디라인, 퍼커션 등 음악 요소의 모두를 표현하는 기타주법) 연주가 모든 공연 중 유일하게 앙코르를 받을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락은 동아리 한 마당의 흥행에 힘 입어 많은 신입생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친구가 어떤 재주로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지 벌써 궁금합니다.

4/2 입학식

입교하고 한 달을 기다린 1학년들이 드디어 간디 새식구가 되었어요!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소개와 선생님 소개, 간디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신입생인 4학년들이 1학년 마음으로 돌아가 공연한 '드림하이',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잘못된 전달로 기획된 첫 1학년 학부모님들 공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입학식의 하이라이트는 시크릿의 '사이보이' 안무를 깜찍하게 소화한 신입생들의 공연이었습니다. 21명 신입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14 문화의 밤 '철이네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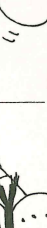
충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철이네 밴드는 기타, 우크렐레, 콘트라베이스, 켈레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인턴십 중인 5학년 임강토 학생과 친분이 있어 객원 멤버로 참여한 강토의 멋진 켈레 연주도 볼 수 있어 더 좋았던 공연은 오랜만에 학교를 들쭉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목직함과 보기만 해도 흥겨운 우크렐레, 간디인들도 많이 애용하는 켈레가 어우러져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학교와 꼭 닮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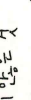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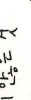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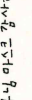
4/28 문화의 밤 '충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에듀 콘서트'

24인조 오케스트라의 우리 학교 첫 방문. 수많은 문화의 밤 행사 중에서도 대형 관광버스가 학교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클래식이 아직 생소한 간디인들도 '브라보'를 외치며 쉽게 즐길 수 있었던 '맞춤형' 공연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간디인들의 쉐도하는 요청으로 'Hey Jude' 색소폰 연주는 앙코르 무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4학년 강한울 군은 옛 첼로 선생님과 극적인 상봉을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 (12) 체육대회 & 신입생 환영회 	(19) 고등부  시반 VS 현숙. 그대 연함 나야 구 대결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10) 개학식 	(19) 고등부 일반 (뽕새반)과 현숙이네. 강의석과 그대를 연함을 상대코 반야구 도전장을 내밀었습네다. 시반이 초반에 정수차를 벌려놓는거 했으나 연함임이 역전승을 거두었습네다~!!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9) 겨울바하 끝! 모두 입교 ~ 	(10) 개학식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8) 하사호 '구리다온' MT ~ 	(10) 개학식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8) 하사호 '구리다온' MT ~ 	(10) 개학식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8) 하사호 '구리다온' MT ~ 	(10) 개학식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8) 하사호 '구리다온' MT ~ 	(10) 개학식 	(25) 비포락서야시 	필리핀 이동하셈은 표준 여학생들이 몸대 가꾸기를 위한 아침운동이 열풍이라고 하고 폐곤한 몸을 끌고 아침 일찍 운동하기 힘들터데. 여자의가 대단합니다! 예쁜 몸매되는 그 4시까지

4월 일새당

반은이 사학년 홍지인 (기자)

해 날 ○	달 날 ○	불 날	물 날	나무 날	쇠 날	흙 날
3학년 여자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여자축구팀이 꾸려졌습니다. 총 14명의 여학생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축구가 재밌다', '연습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열심히 연습한만큼 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 보여줄 것 같습니다~'	⑤ 여자 축구팀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 Goal!	⑩ 점성고시 보는 날	⑭ 문화의 밤 '철이네 밴드' 공연	⑮ 고등부 풋볼 경기가 열렸다! 멋진 플레이가 많았다!	⑯ 가정학습 가는 날	⑰ 이학년 식
가정학습 준비! 입고 ... 신!	가정학습 주는 이다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잠도 많았어! 자야지~	②8 문화의 밤 '축하드립니다' 오케스트라	③0 폭발성 폭발! 중등부 단합대회	③1 폭발성 폭발! 중등부 단합대회	③2 폭발성 폭발! 중등부 단합대회	③3 폭발성 폭발! 중등부 단합대회



김정환(복학생)

기자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좋은 글 주신 분들, 인터뷰 시간 내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겨울방학 때 홀로 학교를 지키며 다른 학교 소식지 검토, 피와 살이 튀는 서로 같이 글 퇴고하기 등 노력한 결과가 조금씩 보이는 거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미안하지만 이젠 전설이 될 거야.



최햇님(4학년)

처음으로 편집장을 맡았는데 이제야 언니들의 고생을 알게 되었네요. 어휴 그래도 편집 끝내고 나니 뿌듯합니다! 일상다반사 부원들 전부 간디IN 개편하느라 작년부터 무진장 수고 많았고, 귀요미 신입부원들 반가워요! 그리고 정환 쌤 힘내요!!!



홍지인(4학년)

이번 봄 호에서는 단신을 맡았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호에서도 마감일을 살포시 넘겼네요. 정환이랑 햇님이 둘 다 수고가 많았어요. 열심히 기사 쓴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아, 점점 우리를 계절과 간디인의 계절이 맞아 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직 여긴 조금 쌀쌀하거든요. 모두 봄감기랑 황사 조심하세요!



임소현(4학년)

이번 호는 특히 개편하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인터뷰에 응해 주신 도깨비 쌤 부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민재 컷물은 매력적이에요.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사랑해요♥



최소은(3학년)

여러 바쁜 일이 많이 겹쳐서 일상다반사 신경 써 주지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신입기자와 함께 열심히 합니다!



조하한(2학년)

어쩌다가 사설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잘 쓰진 못했지만 슬슬 기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신입 기자 티 안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권수정(2학년)

CMS 후원인 인터뷰 질문 순서 제대로 안 했던 거 죄송하구요. 그래도 빨리 올려서 기분 좋네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첫 편집장 햇님 언니 수고했어!!!! 일상다반사 파이팅!^^ 아 맞다. 경동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유 잘 먹었어요~



한 별(2학년)

신입기자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간디인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분 좋고요. 비록 처음 쓰는 글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채식자 모임 인터뷰해 준 범수 오빠랑 인지 언니에게 감사해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D



손채은(1학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TTTT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다반사 파이팅!



김예림(1학년)

일상다반사 부원이 되어서 기쁘고 앞으로 오랫동안 잘 부탁해요.🍀

* 창간부터 지난 겨울 호까지 간디IN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찬호 아버지 김기돈 선생님과 《작은것이 아름답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 호부터는 수산면 대전리에 출판사를 꾸린 '새만화책'에서 편집과 제작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 간디학교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은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와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홈스쿨네트워크 운영비, 다른 대안학교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썼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588분/ 2,021건/ 28,756,060원

(주)두인기전 (주)씨이버텍홀딩스 (주)파워텍 (주)한솔전선 (주)한수섬유 (주)T.S.metal (주)어통수산 강경선 강기갑 강나영 강민혁 강병
임 강상진 강성률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윤택 강정모 강지혜 강진구 강창석 강태갑 경동하 고명철 고산사(주지스님)
고수원 고지철 고창순 공치환 공치성 광영현 광용호 광지훈 구경란 구미숙 구승자 구자민 권도오 권승영 권영석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
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금선 김기만 김길화 김남수 김남식 김다은 김대석 김
도연 김동선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란 김미옥 김미정 김미희
김민진 김배홍 김백영 김법린 김상덕 김상봉 김상의 김서현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옥주 김옥진 김용경 김용규 김용규 김용남 김용철 김용필 김유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장한 김장현 김재구 김재권 김정미 김정일 김중덕 김중우 김중원 김중태 김준희 김지
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향 김진오 김진우 김창석 김태홍 김평호 김학규 김학희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현희 김혜림 김혜
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호연 김홍일 김효진 김희고 김희균 남궁원 남궁원 남상일 남용기 남우우 남혜진 노경수 노경숙 노경환 노상규 노
선영 노윤희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춘희 마미경 마석훈 명보산업개발 문성룡 문신호 문영미 문현주 문효선
민영기 민유기 박경미 박경현 박경호 박기석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미경 박미나 박복자 박봉규 박상규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 김숙정 박영
선 박영자 박영희 박용규 박윤태 박은진 박인옥 박장식 박재는 박재선 박재호 박정기 박정림 박정혜 박종국 박종주 박진석 박진수 박진현 박
창순 박채영 박철은 박현준 박형규 박혜선 박환홍 박홍식 방정태 방준배 배민서 배승만 배영수 배필은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백승훈
변기영 변문기 빈종일 서석중 서정현 서진섭 서홍원 선영미 성정미 소연석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주영 송석표 송윤준 송준식 송하동 신관
수 신동은 신부순 신선영 신영호 신윤숙 신주영 신청삼 신현석 신현정 안두용 안수환 안승범 안정환 안종복 안주연 안주현 안진희 안춘자 안
향석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소영 양수연 양신영 양자영 양해동 양화숙 양후남 염계선 오강순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세익 오영
진 오익문 오전옥 오지혜 오현옥 오혜영 오호군 왕정환 우기백 우성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덕선 유성희 유수진 유양우 유연열 유운모 유
은미 유인수 유일상 유정훈 유준하 유준선 유지상 유태영 유택규 유한목 유항옥 유현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태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연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경숙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낙원 이덕자 이도중 이명조 이명희 이명희 이무섭 이미
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정 이민주 이병순 이병은 이보완 이상현 이상훈 이석은 이선애 이선재 이선재 이석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영 이
수진 이수진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옥 이신혜 이양환 이영남 이영호 이영호 이예준 이오순 이요훈 이용수 이웅 이윤승 이
은신 이은희 이은희 이재성 이재운 이장남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정환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진태 이철배 이철희 이한진 이현숙 이현주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보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오
섭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명원 장미자 장성운 장영순 장인옥 장일경 장지원 장진숙 장현섭 장현정 장현정 장희숙 장희정 전국진 전미영 손
현석 전병민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종철 전주란 정난주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문희 정병수 정병희 정석현 정성옥 정영수 정영숙
정영아 정영환 정용국 정이영 정인숙 정재민 정재운 정종미 정종숙 정종태 정지은 정창도 정태균 정한경 정흥순 정희정 조경선 조경숙 조경
애 조경희 조규석 조동일 조배원 조봉석 조상희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윤호 조은 조은아 조은영 조재천 조정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
연 조혜란 지연철 지재원 진상정 진성기 진영숙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채상병 채석운 채신자 천상명 천희진 최경아 최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
문택 최미숙 최미애 최상운 최선자 최선희 최성철 최소정 최숙 최연호 최영준 최용 최은미 최은미 최인화 최재민 최재화 최재훈 최정옥 최
정운 최종현 최준석 최해만 최홍석 충주종합유통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상철 한승동 한승동 한용택 한현 함재도 허미경 허
성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허재호 현은영 현은수 홍기봉 홍상미 홍수연 홍원희 홍창식 황국덕 황달남 황명숙 황선태 황인명 황인숙 황지연

*CMS 후원 이외에 덕산면에 위치한 홍원철물에서 카페 이용권 15매를 구매해 주셨고, 권영식 님 듀얼백 의자 30개, 김
구원 님 노트북 8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분들도 학교로 연락 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
입은 학교 홈페이지의 'CMS 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연락 주시면 신청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함이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
로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변경, 후원 사항 변경 등 후원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정희정(지수 · 지성 어머니) 017-293-4152

